

무릉저수지, 제주도 최초 통수식 개최...풍년 농사 기원

✎ 고권봉 | ⓒ 승인 2024.04.24 16:04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과학적 농업용수 관리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김동철 본부장)가 24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에 있는 무릉저수지에서 올해 안전 영농 및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본격적인 영농급수를 위한 청정용수의 물길을 여는 통수식을 개최했다.

한해 농사 시작에 앞서 저수지 수문을 통해 물꼬를 여는 행사가 제주도 최초로 무릉저수지에서 개최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김동철 본부장)는 24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에 있는 무릉저수지에서 위성곤 국회의원, 양병우 제주도의회 도의원, 한국농어촌공사 송성일 농어촌이사, 현광수 노동이사 및 지역농업인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안전 영농 및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본격적인 영농급수를 위한 청정용수의 물길을 여는 통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주도에서 지난해 말 무릉저수지의 완공 후 첫 통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제주지역 내에서는 최초로 진행됐다.

통수식이란 논농사 중심의 농업문화에서 4월 중 한해 농사 시작에 앞서 저수지 수문을 통해 물꼬를 여는 행사이며, 1923년 경기도 김포의 신곡양배수장에서 개최한 금파통수식이 이래로 매년 각 지역별로 통수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재해예방과 한 해 풍년을 기원하며 저수지 수문을 열고 양수장을 가동해 첫 물길을 여는 뜻 깊은 날이다.

현재 급변하는 기후로 인한 가뭄과 시설재배 농가의 증가 등으로 인한 지하수 사용량 증가로 제주의 지속사용가능 지하수량의 81.9%가 이미 개발(허가)됨에 따라 제주도의 소중한 자산인 지하수 보전을 위한 용천수, 하천수, 빗물 등 대체 수자원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어촌공사 제주본부에 따르면 통수식이 열린 무릉저수지는 대체 수자원인 용천수를 활용한 30만t 규모로 2023년 완공됐고 대정지역의 2164ha에 대해 농업용수를 연중 상시 공급하고, 고갈돼 가는 제주의 지하수를 보전할 수 있는 주요 대책이 될 것이다.

김동철 본부장은 “올해 영농에 대비해 선도적인 농업용수 관리로 농업인에게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역주민들도 우리 공사와 함께 효율적이고 안전한 한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농업용수 관리로 가뭄 등과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에 기여하고 풍년 농사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권봉 milk_ko@hanmail.net